

# '4050 책의 해' 출범... 연중 독서 문화 행사

문체부, 대한민국 독서대전·세계 책의 날·지역서점 독서모임 등 독서 체험프로그램 진행

“누구든지 책을 통해 꿈과 희망을 낚아채고 상상력과 소실적, 문화적 감수성을 재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전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비탕에는 책이 있으며, 책은 문화적 상상력의 원천”이라며 연중 독서문화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15일 문체부는 대한민국 독서대전, 4050 책의 해, 세계 책의 날, 지역서점 독서모임 등 독서 체험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하며 “책 문화 행사를 통해 책 읽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국민 독서열과 문해력을 향상하고, 독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4050 책의 해’ 출범식을 시작으로 책의 도시 선포식, 세계 책의 날 행사가 이어진다.

15일 오후 2시 출판문화회관 강당에서 출판·서점·독서·도서관·작가 관련 주요 단

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4050 책의 해’ 출범식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4050 중장년 책의 해’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세대이자 인생의 가장 활동적인 시기를 맞이한 중장년층이 인생 2막을 준비하며 자신의 꿈과 취향을 찾고, 삶의 기준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책과 함께하는 여행, 작가 체험, 함께 읽기 등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3월 22일 고양특례시는 문체부와 함께 고양 아람누리 새라세극장에서 ‘2023년 대한민국 책의 도시 고양’ 선포식을 개최한다.

유네스코가 제정한 ‘세계 책의 날’(4. 23.)을 맞아 ‘세계 책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4월 23일 ‘책의 도시’ 고양특례시 호수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시민 423명에게 책을 선물하는 ‘책드림’ 행사

와 전국 서점·출판사 등이 참여하는 책 시장,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행사를 진행한다.

9월에는 독서의 달을 맞아 ‘2023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행사로 대미를 장식한다.

전주, 원주 등 기존 독서대전 개최지에서도 지역 특색을 살린 ‘지역 독서대전’ 행사가 열린다.

문체부는 풀뿌리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지역에서 문화사랑방의 역할을 하는 지역서점의 독서문화 활동을 연중 지원한다.

작가 특강, 북콘서트, 독서모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전국 58개 지역서점을 대상으로 경비 일부와 지역서점이 지역민의 요구와 변화하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낙후된 서가를 개선할 비용도 제공한다.

## “K-콘텐츠 세계 지평 확대 뒷받침할 것”

문체부, 몽골 문화부와 협력 확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

문화체육관광부는 15일 몽골 문화부와 문화교류와 협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과 친바트 너밍 몽골 문화부 장관은 이날 시행계획서를 통해 문화예술기관 간 교류, 국제 영화 공동 제작 협력, 음악산업 발전 경험 공유, 방송프로그램 민간 교류 장려 등을 약속했다.

서명식은 몽골 톱상남스라이 어용에르덴 총리의 공식 방한을 계기로 진행된 한·몽 총리 회담 이후 이뤄졌다.

박 장관은 “몽골은 우리와 역사적, 문화적,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이웃으로 자유, 민주주의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국과 몽골의 문화교류·협력 강화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은 물론 K-콘텐츠의 세계 지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책임이 있게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과 몽골은 지난 1991년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이래 4차례의 구체적인 문화교류·협력 사항을 담은 문화교류시행계획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우호 협력을 증진하고 양국 국민 간 이해를 높여 왔다.

양국은 이번에도 다섯 번째로 체결한 시행계획서를 기반으로 문화예술, 영화 제작, 음악산업, 대중매체 등 여러 방면에서의 민간 기업과 공공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 경험과 정



15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몽골 친바트 너밍 문화부 장관이 ‘2023-2026 문화교류시행계획서’를 체결했다. (사진=총리실 제공)

책을 긴밀히 공유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이번 시행계획서를 계기로) 올해 몽골과 협력해 진행하고 있는 올림바트르 시립 중앙도서관 조성 사업과 몽골 국립인형극장과

의 문화예술교류 역량 강화 사업, 한·몽 공동 학술조사 등이 한층 더 탄력을 받아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순창의 고전 문화와 순창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담은 그림책 ‘설공찬이’를 발간했다.

## 순창 그림책 ‘설공찬이’ 출간

국내 대표 공공도서관·관내 어린이집·초등학교 배포

순창군 군립도서관이 순창의 고전 문화와 순창 사람들의 삶과 지혜를 담은 그림책 ‘설공찬이’를 발간했다.

‘설공찬이’ 그림책은 2021년 ‘다시 쓰는 설공찬이’ 소설 출간과 2022년 웹툰에 이어 작업한 세 번째 결과물이다. 우리 고장의 고유 문화콘텐츠인 조선시대 소설 ‘설공찬전’을 다양한 콘텐츠로 만들어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순창 그림책 ‘설공찬이’의 그림을 그린 오지근 작가는 20여 권이 넘는 그림책을

출간했으며, 서양화에서 시작해 동양화로 옮겨가며 우리 고유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데 탁월한 작가다.

‘설공찬이’는 다양한 채색과 표현을 통해 조선의 판타지로 불리는 ‘설공찬이’ 보여 주는 상상의 세계를 맘껏 펼쳐주는 책이다.

순창군립도서관은 그림책 ‘설공찬이’를 국내 150여 대표 공공도서관 및 관내 어린이집과 초등학교에도 배포해 순창의 문화 콘텐츠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 익산 ‘문화예술공간 오늘’ 서 세 번째 전시회 개최

익산시와 익산시문화도시지원센터가 청년문화거리에 조성한 문화예술공간에서 지역예술인들과 청년들의 활발한 예술활동이 펼쳐진다.

15일 시에 따르면 문화도시 거점공간인 ‘문화예술공간 오늘’에서 오는 16일부터 3월 20일까지 세 번째 전시회를 개최한다.

전시회는 원광대학교 미술과와 협업하여 원광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학과 교수 등 지역대학 출신 예술인들의 작품을 가까운 곳에

서 만날 수 있도록 마련했다. 서양화, 한국화, 조소 등 20여점의 시각예술 작품전시 및 원광대학교 재학생들의 작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아트마켓을 함께 진행한다.

다음 전시는 4월 지역 주얼리 작가들의 다양한 예술적 작품전시 및 시민들이 함께 즐기 소통할 수 있는 주얼리 체험을, 5월에는 전북 지역 청년 예술인들의 감각적인 작품을 기획 전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 고창문화관광재단, 20일까지 신규직원 11명 공개 모집

고창문화관광재단이 신규직원 11명의 공개 모집 채용을 오는 20일까지 접수한다.

채용 분야와 인원은 고창문화관광재단 팀장 1명 주임 1명, 사원 2명과 고창문화도시센터 팀장 3명, 사원 4명이다. 고창문화관광재단은 관광과 문화에 경험과 능력 있는 계약직 직원을 뽑는다.

특히, 2023년 고창 방문의 해를 맞이해 축제와 관광 분야의 전문가를 찾고 있다.

고창문화도시센터는 고창군의 문화도시 선정

에 따라 향후 5년간 문화도시 사업을 운영할 직원을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한다.

채용 전형은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시험으로 진행되고, 팀장급은 PT발표가 포함된 종합 면접으로 치러진다.

접수는 이메일과 우편으로 가능하며, 분야별 자격요건, 전형 일정 등 채용절차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고창문화관광재단 누리집(열린광장) 채용및인합에서 채용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